

4/ 중앙-지방의 관계동학과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나가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

김희경



나가노현 현가(信濃の国)의 가사

출처: <http://www.pref.nagano.lg.jp>

김희경(金喜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보건교육 및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BK21플러스사업단 박사후연구원이다. 일본 및 한국 정부가 인구고령화라는 현상에 어떻게 대응해왔으며, 이러한 대응방식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동을 가져왔는지, 고령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고안된 의료기술 및 보건복지정책이 고령자들의 자기유리, 삶과 죽음의 경계, 인간다움의 정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설: 일본 농산촌 지역에서의 Aging in Place 실천과 장소감각의 경합」(2016), 「노년에 대한 인류학 연구의 이론적 정향 검토」(2014), 「Irony and the Sociocultural Construction of Old Age in South Korea: Perspectives from Government, the Medical Profession, and the Aged」(2010)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일부 사용했다. 김희경, 「핀핀코로리의 비밀: 일본 나가노현 사쿠시에서의 생명정치와 노년의 자기유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1. 들어가며

일반적인 “나가노현(長野県) 사람들”의 이미지라 하면, “고집이 세다”, “고지식하다” 아닌가? 이걸 대체 언제부터의 이야기일까? 일본 각국의 성격 및 풍속을 기록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현민성(県民性)에 대한 책이라 볼 수 있는 『인국기』(人國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다. “시나노는 무사의 기질로 따지면 천하제일이다. 무엇보다 백성들도 성실하고 정직하다. 의리가 강하고 주눅 들지 않으며, 백에 구십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지해도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우수하다. 벽촌에 살다 보니 빠뜨려지고 고지식한 사람이 많지만, 좋은 기질의 사람도 많다.” 의리가 강하다거나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지만, 신경 쓰이는 건 “빠뜨려지고 고지식한 사람이 많다”는 부분. 대체 왜일까? ‘바다가 가까운 지역의 사람은, 이 바다는 중국대륙, 또는 미국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에 비해 내륙과는 ‘이 산 저편에는 ○○동네사람’이라고 느낄 테니, 어떻게 하더라도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다.¹

『현민성! 출세·결혼·돈의 90%를 결정한다!』라는 대중서가 출간될 만큼 일본사회에서 “현민성”은 혈액형만큼이나 관심을 갖는 주제다. 현민성이란 일본의 행정구역인 각 도도부현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기질 및 사고방식과 같은 특성을 말한다. 나가노현의 현민성은 대개 ‘고집이 세다’, ‘고지식하다’ 또는 ‘성실하고 정직하다’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현민성은 지형이나 기후, 인구, 산업, 역사, 풍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고유한 특질로 인식되어왔다.

나가노현의 면적은 전국에서 네 번째(총 13,562.23km²)로 넓지만, 산림의 비중이 73%여서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다. 기후는 내륙의 특성상 겨울이 길고 여름은 무덥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

1 田幸和歌子, 「あの人は長野県人だから」って, どういう意味?」 <http://www.excite.co.jp/News/bit/E1394789480214.html>(검색일: 2016. 10. 6).



〈그림 1〉〈돌격하자! 아사마산장으로〉 영화 포스터

민들은 생선과 같은 물자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교통이 늦게 발달해 신칸센(新幹線: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꽤 오랜 기간 고립된 채 살아야 했다. 이러한 여러 요인 때문에 나가노현은 “가난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폐쇄적인 시골”의 이미지가 강했다. 물자의 수송이 발달하지 못하고 겨울이 길다 보니 나가노현 주민들은 주로 소금에 절인 음식을 먹어야 했고, 이는 뇌졸중(주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단명지역이

란 오명을 씌어졌다.

나가노현 현민들을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다”고 보는 시선은 하라다 마사토(原田眞人) 감독의 〈돌격하자! 아사마산장으로〉(突入せよ! あさま山荘事件)²라는 영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 영화에서도 나가노현 주민들은 무능하면서도 도움의 손길조차 거절하는 폐쇄적이며 고집스럽고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도쿄 경시청 출신인 사사키 아쓰유키는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노현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나가노의 문제는 나가노에서 해결하겠다”며 나가노 경찰들은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려보지만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은 도쿄 출신 주인공이다. 마침내 문제를 해결한 도쿄 출신 경찰들을 향해 그제야 나가노 주민들은 “도쿄에서 오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라며 환호한다. 이 장면은 도쿄로 상징되는 중앙과의 수직적 위계 속에 나가노현의 지역성(locality)이 생산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

2 1972년 연합적군이 나가노현 가루이자와(軽井沢) 지역에 있는 아사마산장에서 산장 관리인의 부인을 인질로 삼아 10일간 경찰과 대치했던 사건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 일본사회에서 중앙과의 마주침 속에서 생산 및 구성되는 지역성의 역동적 측면을 나가노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규명해 본다. 나가노는 중앙으로 표상되는 도쿄와 상대적으로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앙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중앙의 시선에서 바라본 지역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중앙의 시선을 의식한 지역민들은 지역의 이미지를 어떻게 변형시켜왔는지 그 역동적인 양상을 잘 탐색할 수 있는 사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앙과의 마주침을 통해 나가노 지역이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주목받아왔던 역사적 주요 국면들을 고찰함으로써, 나가노라는 지역공간의 재현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주민들의 공간적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논하겠다. 또한, 재현방식의 변화가 지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역민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겠다.

2. 이론적 검토

이 글에서는 “지역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거나 원래부터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론적 관점”³을 택하고자 한다. 공간 생산의 원리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인 르페브르(H. Lefebvre)는 공간 생산의 세 가지 계기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재현된 공간(representational spa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 of space),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s)이 그것이다.⁴ ‘재현된 공간’이란 공간의 거주자들과 사용자들의 상징적 이용과 상상에 의해 변화되고 전유되는, 공간적 실천을 위한 새로운 의미를 가능케 하는 직접 체험된(lived) 공간을 지칭한다. 둘째, ‘공간

3 조아라,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일본 홋카이도 세 지방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16쪽.

4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79~92쪽.

의 재현'이란 학자들과 도시계획가들, 기술관료(technocrat)들에 의해 기호나 부호, 지식 등으로 표준화되고 개념화된 인지된 공간(conceived space)을 가리킨다. 셋째, '공간적 실천'은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을 정착시키며 예측하는 것으로,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체적인 흐름과 이동, 상호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실천들을 통해 공간은 지각되고(perceived), 연행적 정체성(performed identity)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르페브르는 직접 체험하는—인지된—지각된 공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다. 공간은 특정한 지식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획되기도 하지만, 매일 매일의 실천을 통해 새로운 연대와 소통, 차이와 횡단의 가능성이 구현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르페브르는 공간을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산물로서, 더 나아가 생산 작용 자체로 파악함으로써, 공간이 지닌 복잡성과 활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러한 개념적인 구별을 통해 르페브르가 보여주려는 것은 공간이 지니고 있는 중층성과 복잡성이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민족지적 접근을 강조한 세타 로(Setha Low)의 논의를 적용한다. 로는 '공간의 사회적 생산'(the social production of space)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the social construction of spa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로에 따르면, '공간의 사회적 생산'은 특정한 공간이 역사적, 정치·경제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경제적·이념적·기술적 요소들 간의 경합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이며, '공간의 사회적 구성'은 일단 형성된 공간을 두고 그 이용자들이 행하는 의미 전유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⁵ 즉, 로는 "특정한 공간의 외양을 결정하고 그에 대해 '타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복합적 경합 과정과 함께, 공간 설계자들의 의도와 해당 공간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 사이의 불일치를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⁶ 이 글에서는 로의 논의를 참고하여, 나가노 지역성이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맥락과 지역민들의 삶에 미

5 Setha M. Low,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University of Texas, 2003, pp.127~131.

6 정현목, 『마르크 오제, 비장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3쪽.

친 영향, 그리고 지역민들은 이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구성해나가고 있는지 구명하겠다.

이 글에서는 나가노 지역이 중앙과의 마주침 속에서 어떻게 재현되어왔으며, 그러한 재현 방식이 실제 주민들이 나가노 지역을 재현하는 방식에 어떻게 “침투해왔고, 다른 한편으로 포개져왔는지”⁷⁾ 그리하여 어떠한 공간적 실천을 구성하고 있는지 논하겠다. 또한, 중앙과의 대면이 지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지역민들의 마음에 어떠한 양금이 남아있는지, 그러한 양금은 어떠한 실천들로 이어졌는지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그 안에서의 실천들이 서로 얹혀 들어가며 나가노현 지역성이 구성되는 측면을 구명하겠다.

3. 나가노 지역성의 사회적 생산 및 구성 과정

1) 〈시나노노쿠니〉(信濃の国)⁸⁾의 탄생 과정 및 의미의 전용

시나노는 10개의 나라가 인접해 있고

우뚝 솟은 산은 얼마나 높은지

흘러가는 강물은 얼마나 긴지

마쓰모토, 이나, 사쿠, 겐코지

4개의 평원, 비옥한 땅

바다는 없다 하지만,

무엇 하나 부족한 것, 하나 없다네.

- 현가(県歌) 〈시나노노쿠니〉(信濃の国) 중 1절

7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153쪽.

8 '시나노'(信濃)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8세기 전반(715~740년) 목간(木簡)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7세기 말 후지와라 궁터(藤原宮跡)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시나노쿠니'(科野国)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나가노현의 옛 이름인 시나노만류이나 널리 알려진 신슈(信州)라는 이름은 헤이안 시대 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나가노현의 위치

1998년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당시, 일본선수단이 입장하는 순간, 나가노현의 대표적인 현가(県歌)인 〈시나노노쿠니〉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스탠드에서 이를 지켜보던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도도부현 역시 〈시나노노쿠니〉와 같은 현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나노노쿠니〉처럼 대다수의 현민들이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보편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현가는 흔치 않다.⁹ 게다가 대부분의 현가들이 전후에 제정된 데 반해 〈시나노노쿠니〉는 1900년(메이지 33년)에 만들어졌다. 이처럼, 〈시나노노쿠니〉는 주민들에게 나가노현이라는 재현공간을 상상하게 하는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다.

〈시나노노쿠니〉는 총 6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나가노현의 자연의 아름다움, 나가노현이 자랑하는 산업 및 역사적 유적, 나가노현 출신 위인 및 미래를 향한 결의 등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의 가사에서 제시된 것처럼 나가노현은 니가타현(新潟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야마나시현(山梨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아이치현(愛知県), 기후현(岐阜

9 山口幸男, 「明治期郷土唱歌「信濃の国」社会科地理教育的考察」, 『新地理』 45(2), 1997, 56쪽.

県), 도야마현(富山県)과 인접해 있다. 이 글의 주 연구 대상인 사쿠 지역은 나가노의 중동부에 있으며, 도쿄까지는 자동차 또는 신칸센으로 2시간 남짓 걸린다.

〈시나노노쿠니〉는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 내부에서 고안된 산물이라는 설명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신슈국 혹은 시나노노쿠니의 중심은 마쓰모토(松本)였다. 중앙정부는 1871년(메이지 4년) 전국적으로 폐번치현 개혁을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해 6월, 마쓰모토에 있던 지쿠마 현청(筑摩県庁)이 화재로 소실됐다. 줄지에 현청이 사라지게 되어 행정업무를 보기도 힘들어지자 당시 지쿠마현 정부는 독자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나가노현과 합병을 진행했다. 이후 남신 지역¹⁰ 주민들은 북쪽에 있는 나가노시(長野市)까지 행정업무를 보러 가야 했고, 주변부로 밀려난 기분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현청을 마쓰모토로 옮기거나 아예 현을 분리하자는 청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이를 두고 남부와 북부가 심하게 대립했다.¹¹ 이에 나가노현 사범학교 교사회에 소속된 아사이 기요시(浅井洌)는 노래 가사를 통해 “나가노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¹²

그런데 음악사를 연구한 와타나베 히로시(渡辺裕)에 따르면, 〈시나노노쿠니〉는 중앙과 지방과의 마주침 속에서 만들어진 노래다.¹³ 와타나베는 〈시나노노쿠니〉가 청일전쟁(1894~1895)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노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청나라와 전쟁 중이던 일본 정부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잠재우고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메이지 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지역민으로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다수의 지리교육창가를 만들게

10 남신(南信) 지역은 나가노현의 옛 이름인 신슈에서 비롯된 말로, 나가노의 남부를 가리킨다. 참고로 나가노현 북쪽 지방은 북신(北信), 동쪽 지방은 동신(東信)이라고 부른다.

11 신슈대학 홈페이지 참고, <http://www.shinshu-u.ac.jp/english/about/history.html> (검색일: 2016. 10. 20).

12 “特集: 歌い継がれる県歌「信濃の国」,” <http://www.pref.nagano.lg.jp/koho/kensei/gaiyo/shoukai/kenka.html> (검색일: 2016. 10. 6).

13 渡辺裕, 「県歌《信濃の国》にみる「中央」と「地方」」, 『AσTEION』 71, 2009, 133~134쪽.

했다.¹⁴ 〈시나노노쿠니〉 역시 처음부터 현가로 제작된 게 아니라 국민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다수의 노래들 가운데 하나였다.¹⁵

〈시나노노쿠니〉는 중고등학교 운동회에서 여자부 생도들의 유희곡(遊戯曲: 댄스곡)으로 사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일본사회에서 운동회는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체를 일본이 국민국가로서 ‘신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체=신하의 몸으로 조련하는 신체공학적 장치”로 활용됐다. 그리하여 1900년대 이후 운동회는 강변이나 들판보다 오히려 잘 정비된 학교에서 열리게 됐고, 경기 종목도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즉, 운동회를 통해 운동하는 ‘나’의 신체는 우리 ‘팀’을 위해 있으며, 우리 ‘학교’를 위해 존재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훈육의 의도가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¹⁶ 즉, 〈시나노노쿠니〉는 이처럼 일본 정부의 국민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국가적 기획으로 설계된 운동회는 지역사회로 내려오면서 ‘마을축제’ 혹은 ‘구경거리’, ‘제례’로 변형됐다. 나가노현의 여학교 교장은 “운동회가 열리는 날을 시 전체의 남녀노소가 모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즐거운 날로 손꼽아 기다리게 됐으니, 완전히 종래의 제례일과 똑같이 됐다”고 말하기까지 했다.¹⁷ 근대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체로 훈육하려던 국가의 기획은 지역사회라는 공간에 들어서면서 근대성과 전통성이 혼합된 마을축제로 비틀리게 됐다. 〈시나노노쿠니〉는 어느 순간부터 축제의 여흥을 돋우는 창가로 지역주민들 틈에서 향유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시나노노쿠니〉 같은 노래가 포함된 유희를 최대한 줄이고 기미가요(君が代) 같은 노래를 운동회의 시작과 끝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했다.¹⁸

이처럼 나가노현 주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의 나가노”라는 재현공간을

14 新田充, 「唱歌「信濃の国」における郷土の創出と変容」, 『信濃』 54(11), 2002, 837쪽.

15 〈시나노노쿠니〉는 1968년 정식으로 나가노현의 현가로 제정됐다.

16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운동회: 근대의 신체』, 논형, 2007, 21쪽.

17 요시미 순야, 이태문 옮김, 『운동회: 근대의 신체』, 63쪽.

18 新田充, 「唱歌「信濃の国」における郷土の創出と変容」, 2002, 838~841쪽.

떠올리게 만들어주던 〈시나노노쿠니〉는 처음에는 효과적으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 유통되면서 지역주민들은 마을축제의 여흥을 돋우는 노래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시나노노쿠니〉가 나가노현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은 기저에는 중앙정부와 지역민들 사이의 다양한 “대화”¹⁹와 역동이 존재했다.

2) 시정촌 합병 정책의 영향 및 지역주민들의 잠재적 저항

르페브르의 논의에 영향을 받아 지역성의 생산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교화한 인류학자인 아파두라이(Appadurai)는 “모든 지역성의 형성에는 식민화의 순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국민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동네(neighborhood)는 국경만큼이나 경비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한다.²⁰ 일본 정부가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강조했던 이유는 촌락사회들을 총동원 체제에 편입시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였다.²¹ 시정촌 합병(市町村合併) 정책 역시 지방이라는 공간을 중앙정부의 논리와 입장에서 관리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일본에서는 역사적으로 크게 세 번의 시정촌 합병이 있었다. 우선 1888년(메이지 21년) 시정촌특례정이 실시되면서 1889년(메이지 22년)부터 시제(市制)와 정촌제(町村制)가 시행됐다. 메이지대합병(明治大合併)은 초등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형성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888년 당시 7만 1,314개에 달하던 정촌이 1989년에는 시(市) 39개, 정촌 1만 5,820개로 줄어들었다. 현재의 사쿠시(佐久市)를 구성하는 많은 마치(町)와 무라(村) 역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²²

19 로는 공공 공간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사람들의 경험 간의 관계에 대해 논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경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계는 변증법적(dialectic)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는(dialogic) 것과 같은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나가노 지역의 사례 역시 특정한 방식으로 귀결되기보다는 다양한 양상의 뒤를림, 번역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 볼 수 있다. Setha M. Low,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p.131.

20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형 옮김,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320쪽.

21 임경택, 「일본의 천황제와 촌락사회구성에 관한 사회민속학적 고찰: 이른바 ‘가족국가’(家族國家)의 질서와 관련하여」, 『日本思想』 6, 2004, 58쪽.

22 일본 총무성 사이트 자료 참조(<http://www.soumu.go.jp/gapei/gapei.html>, 검색일: 2013. 11. 27).

이후 1947년(쇼와 22년)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자주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공정성 확보’ 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3년 정촌합병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쇼와대합병(昭和大合併)의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쇼와 대합병은 1947년 당시 성립한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초지방정부의 형성을 목표로 했다.

좀 더 극적인 변화는 헤이세이대합병(平成大合併) 시기에 이뤄졌다. 정부는 1999년(헤이세이 11년) 7월 ‘시정촌 합병 특례에 관한 법률(합병특례법)’에서 지방교부세 특례조치를 확충하고 합병특례채(合併特例債)를 창설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포함시키고, 같은 해 8월에는 ‘시정촌 합병 추진에 대한 지침’을 명시했다. 또한 2001년 8월에는 ‘시정촌 합병 지원 플랜’을 책정하고 합병 특례법 기한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지방분권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규모 지자체를 정리하는 구조조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2001년 고이즈미(小泉) 내각은 시정촌 통합과 광역행정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이고 조속하게 시정촌 재편을 추진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는 인구 1만 명 미만인 자치단체를 강제로 통합하고, 통합을 이루지 못한 소규모 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며, 인구 3,000명 이하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 공공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²³ 인구 1만 명 이하의 자치단체는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처럼 시정촌 합병은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 지역 내 다양한 거점을 하나의 중심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중심이 되지 못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떠밀리게 됐고, 중심이 된 지역

23 조아라, 「일본의 시정촌 통합과 행정구역 재편의 공간정치」, 『대한지리학회』 45(1), 2010, 119~143쪽.

은 더욱 발전하는 불공평한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개별 지역 공동체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중심이 되는 지역의 논리에 주변 지역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중심이 되기 위해 소규모 지역 공동체들 간에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빚어졌다.

일례로, 나가노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사마마치(淺間町)와 히가시무라(東村)는 정촌합병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 간의 대립이 극심해진 사례다. 1954년 7월 10일, 이와무라다마치(岩村田町), 히라네무라(平根村), 미쓰이무라(三井村), 시가무라(志賀村), 나카사토무라(中佐都村), 다카세무라(高瀬村)를 합병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중학교 문제, 재산 문제, 부채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쓰이무라와 시가무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라 소속의 산림 문제가 조정되지 않아 교섭은 실패로 돌아갔다. 산림보유율이 높은 미쓰이무라와 시가무라에서는 합병 이후에도 산림은 원래 지역 소유로 남겨둘 것을 주장했지만 다른 정촌들은 마치고 무라 소유 재산을 합병과 동시에 새로운 마치고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두 무라를 제외한 채 교섭이 진행되어 1954년 12월 20일에는 아사마마치(淺間町)가 성립됐다.

단기간에 무조건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 쫓겨 합병을 했기 때문에 통합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합병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역감정 역시 지역주민들의 가슴 속에 앙금으로 남아 있었다. 나가노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사쿠 지역의 경우 헤이세이대합병의 영향으로 2005년 4월 사쿠시(佐久市), 북사쿠군 모치즈키마치(望月町), 아사시나무라(浅科村), 남사쿠군 우스다마치(白田町)가 합병되어 신(新)사쿠시가 탄생했다. 따라서 현재의 사쿠시가 성립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구(旧)사쿠시 지역주민들은 시정촌합병을 “구제합병”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아사시나무라와 모치즈키마치, 우스다마치의 빚을 구사쿠시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합병 이후에 세금이 올랐다는 것이다. 반면, 우스다마치 주민들은 “합병으로 인해 우스다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행했던 많은 자치활동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렸다”며 불만을 표

시켰다. 모치즈키마치 주민들은 “합병 이후 모치즈키 고유의 색이 없어지고 있으며, 시청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함이 많아졌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래서 자신들을 ‘사쿠시민’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합병 이전의 정촌 주민으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도 많았다. 일례로 연구자가 우스다 지구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을 “우스다”라고 부르자 지역주민은 “그렇게 부르면 그 사람들 화 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 무라 이름을 그대로 부른다고”라며 핀잔을 줬다. 즉,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행정구역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던 방식을 고수하는 “잠재적 저항”(latent protest)을 실천하고 있었다.²⁴

이처럼 나가노현 지역 내부의 경계는 국가가 지역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즉, 중앙정부는 지역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지역 내부의 경계를 새롭게 규정했고,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공간에 부여하고, 생산해왔던 의미들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을 생산하려는 시도는 지역민들의 잠재적 저항을 빚어내고 있었다.

3) 동계올림픽의 영향과 양가적 존재로서의 중앙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와 계속해서 마주침에 따라 어떻게든 중앙과의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믿음은 특히 1998년 나가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더욱 견고해졌다. 1998년 2월 7일부터 22일까지 총 16일간 치러진 나가노현 동계올림픽은 개최 비용만 총 5,484억 5,606만

24 로는 공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하려는 힘이 시민들의 감정과 저항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저항의 종류는 크게 명백한 저항(manifest protest), 잠재적 저항(latent protest), 의례적 저항(ritual protest)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새롭게 부여받은 행정구역상 이름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지명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나가노현 주민들의 대응방식은 직접 데모를 한다거나 퍼레이드, 카니발과 같은 의례적인 형식을 빌리는 저항이라기보다는 잠재적 저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Setha M. Low,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p.183.

7,892엔에 달했다.²⁵ 이 가운데 2,479억 엔 정도가 책정된 신칸센 부설을 포함한 올림픽 관련 도로 건설비를 따내기 위해 나가노현 내 지역들은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 절에서는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규모의 국가행사가 지역사회의 공간적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사쿠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사쿠시의 경우는 인근 지역인 고모로시(小諸市)와 신칸센 유치를 두고 겨뤄야 했다. 누구보다 신칸센 유치를 위해 힘썼던 상인협회 부녀회 회장이었던 이토(伊藤) 씨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각 시의 단체가 모두 제발 사쿠시에 신칸센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러 도쿄에 갔지요. 그때 카루이자와에 지나가는 건 확정된 거라 동선으로 보면 코모로가 더 적합한 상황이었죠. 결국 사쿠에 신칸센이 들어온 건 미우라(三浦) 시장 덕분이라 할 수 있어요. 미우라 시장 이전 시장인 고즈 시장 시절이었죠. 저기 현지사가 보이니까 고즈 시장이 '어, 지사님!' 하고 지사를 부르며 악수를 청했는데 지사가 시장을 쫓 보더니 악수도 안 받아주고 그냥 갔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쿄는커녕 현지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서 이런 모임을 갖는다고 신칸센이 들어오겠나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능해 보이질 않았죠. 그러고 나서 선거가 있었고 고즈 시장이 아무래도 힘이 없었으니까 결국 낙선을 했지요. 미우라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신칸센이 이리로 오게 될 겁니다'라고 말했는데 반신반의했지요. 여기는 선로도 없고, 동선도 고모로 쪽이 빠르니까. 그런데 사쿠시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미우라 시장은 후생성(厚生省)에서 일을 했으니까 뭔가 곤란한 걸 부탁할 사람들이 도쿄에 있었겠죠. 미우라 시장 같은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미우라 시장이 한 번 더 시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5 야스모토 아츠코,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개최 후 관광자원화에 관한 연구: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을 사례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집』 76(2), 2014, 510쪽.

이토 씨의 설명처럼, 당시만 해도 사쿠 지역보다는 인근 지역인 고모로에 신칸센이 들어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미 가루이자와 지역 쪽에 신칸센이 들어서리라는 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선로도 없고, 동선도 좋지 않은 사쿠 지역에 신칸센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쿠 지역에 신칸센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토 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이게 다 도쿄와의 끈을 가지고 있는 미우라 전 시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전 시장이었던 고즈 시장은 지역 내에서 굉장히 신망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신칸센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쿄와 끈을 가지지 못한 그는 결국 낙선하고 말았다. 도쿄와 연결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렇게 지역 내 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결국 1997년 사쿠다이라(佐久平) 역이 개통되면서 사쿠 지역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래 사쿠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신칸센 등이 건설되면서 사쿠 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건설업에 종사하게 됐다. 또한 신칸센 주변으로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는 등 대규모 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서비스업 및 판매업 역시 크게 성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의 과실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던 것은 아니다. 신칸센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상인들은 생각지 못했던 피해를 보게 됐다. 신칸센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주요 상점가들은 이전의 활력을 상실하게 됐다. 작은 규모의 생활용품 가게와 슈퍼 역시 줄지어 사라지게 됐고, 특히 나이 든 지역주민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노인들은 계속해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근처 상점이 필요했다. 그런데 작은 상점들이 도산하자 노인들은 “쇼 핑약자”(買い物弱者)로 전락했다.²⁶

동계올림픽의 경험을 통해 지역민들은 중앙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렇지만, 신칸센이 들어선 이후 지역

26 김희경,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실: 일본 농산촌 지역에서의 Aging in Place 실천과 장소감각의 경험」, 『비교문화연구』 22(1), 2016, 272쪽.

내 공간실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외부인이 많이 유입됐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다. 지역 내 상권은 그 영향으로 쇠락했고 많은 주민이 곤경에 빠지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은 중앙과의 마주침을 통해 파생되는 결과가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4) '장수촌'으로의 재현과 자생적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

전후 복지국가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던 일본 정부는 점차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가족 및 지역사회라는 전통적 자산을 활용하는 '일본형 복지모델'을 고안했다.²⁷ 인구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 비전을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했던 일본 정부는 나가노현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일차적으로 일본 정부가 나가노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통계로 재현된 나가노현의 이미지 때문이었다. 나가노현의 남성 평균수명은 일본 전체에서 가장 높았고, 여성의 평균수명 역시 4위였다. 또한 70세 이상 일인당 노인의료비는 20만 엔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의료비가 가장 높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절반 수준이었다. 노인들이 병원에 머무르는 기간 역시 가장 짧았고, 재택개호율도 높았다. 특이한 점은 평균수명은 길지만, 100세 이상 노인 수는 전국에서 22위로 중간 정도였다. 통계로만 보면 나가노현에는 "적당히 길지 않게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²⁸ 노인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나가노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핀핀코로리에의 권유』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그런데 조사결과에서 일본 정부는 그 비결을 현민성에 찾고 있었다. 산림이 70% 이상인 척박한 자연환경과 일생에 걸친 농사일로 고된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나가노현 노인들은

27 김희경, 「유령고령자 사건과 한여름 밤의 시취(屍臭): 일본의 근대화와 노인복지체제의 모순」, 이현정·김태우 편, 『의료, 아시아의 근대를 읽는 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미간행.

28 水野肇·青山英康, 『PPKのすすめ』, 紀伊国屋書店, 1998, 6쪽.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크고 작은 통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1〉 정부보고서에서 재현되는 나가노현 노인들의 모습

통계분석을 통해 나오는 결과는 바로 ‘핀핀한’(ピンピン) 노인의 이미지와 맞아 떨어진다.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들이 많은 이유는 농사일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집 뒤와 산에 있는 밭을 경작하는 매일의 생활 그 자체가 고령자 취업률을 지탱하고 있다. 산비탈을 걷고, 이동하고, 농사일을 하는 생활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몸을 단련시켜왔다. …지노시(茅野市)에서 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다른 현에 비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적은 게 아니라, 크고 작은 병에 걸려도, 병을 잘 조절하면서 ‘생애현역’(生涯現役: 평생 동안 일을 하며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냥 그냥 살아가는 지혜’를 갖고 있다거나 ‘참는 게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²⁹

또한 일본 정부는 나가노현의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수, 병상 수, 병상이용률, 의사 수, 평균재원일 수, 재택사망을 등 기초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나가노현의 병상이용률은 41위로 상당히 낮았으며, 병원 수도 많지 않았다. 나가노현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병에 덜 걸리는 것도 아닌데 병원을 이용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를 “재택의료가 충실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보고서에서는 나가노현의 주민 한 명당 보건사의 수는 전국 4위로 양적으로 보아도 충실하지만, 실천 양상에서는 이 같은 수치를 뛰어넘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나가노현 내 대부분의 시정촌이 각 지구마다 검진결과 설명회를 열어 건강검진을 권하거나 생활

29 水野肇・青山英康, 『PPKのすすめ』, 22~31쪽.

지도에 힘을 쏟고 있었다. 또한, 보건사가 노인들의 집에 방문해 다양한 보건활동을 실천하고 식생활을 지도하고 있어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보건보도원(保健補導員)의 존재 역시 지역사회 결속을 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에서 보건보도원 조직이 실천되고 있는 지역은 나가노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즉, 일본 정부에 있어 나가노현 모델은 노인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가 노인 돌봄의 문제를 전통적인 가치에 의존하여 자립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으로 ‘일본형 복지모델’을 실현하고 있는 사례였다.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노인을 갖다 버리는 풍습이 존재할 만큼 척박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폐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던 나가노현 노인들의 현민성과 이러한 노인들을 지지해주고 있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존재에서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신칸센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전되고 있는 나가노현의 모습이나 과소화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가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 모습, 가족들은 도시로 떠나고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상 지역에 방치된 노인들의 모습은 생략되어 있었다.³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현재가 아닌 과거에서,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찾는 정부의 시도는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지방을 이상화하는 담론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정책들과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민족적·국가적 자아를 구축하고자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후루사토”(故郷)는 일본 민족의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강력한 상징어로 도입됐다.³¹ 흥미로운 사실은—한국의 “고향의 봄”만큼이나 유명한—일본의 대표적인 동요 〈후루사토〉의 배경이 되는 장소 역시 나가노현이라는 점이

30 김희경,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실: 일본 농산촌 지역에서의 Aging in Place 실천과 장소감각의 경합」, 268~274쪽.

31 권숙인,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2~19쪽.

다.³² 따라서 중앙정부가 나가노를 ‘장수촌’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나 그때 활용하는 문법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나가노현의 이상적인 면면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실천 속에서 만들어졌다. 사쿠 지역은 나가노현 내부에서도 지역주민과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다. 이러한 명성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쿠종합병원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4년 나가노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長野県厚生農業協同組合連合会)에서는 농촌지역의 척박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을 출자하여 사쿠종합병원을 설립했다. 병원이 세워지긴 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의료는 매우 값비싼 자원이었다.³³ 따라서 설사 병원이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의사를 부르는 것은 일종의 ‘사치’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그 결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사쿠종합병원의 원장을 맡았던 와카쓰키 준이치(若月純一) 선생을 비롯한 의료진들은 의학지식을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하려 노력했다.

무엇보다 사쿠병원 의료진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일례로 1957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비 자기부담분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징수해야만 했다. 당시 사쿠 지역 주민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농민들은 대부분 8월 중순의 오봉이나 수확철을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이 없었다.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사실상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32 동요 〈후루사토〉의 작사가인 다카노 다쓰유키(高野辰之)는 자신의 고향인 나가노현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사를 지었다. “산토끼를 쫓던 산/작은 봉어 잡던 냇물/꿈속에선 아직도 그곳을 맴도네/잊을 수 없는 후루사토/어떻게 계시는지 부모님은/아픈 곳은 없는지 벚데겐/비바람 몰아쳐도/언제나 떠오르는 후루사토/내가 지금 애타게 원하듯/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푸르른 산자락 후루사토/맑은 물 흐르는 후루사토”

33 若月純一, 『村で病氣とたたかう』, 岩波新書, 2002, 15쪽.

에 사쿠병원 의료진과 지역주민들은 창구정수제도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쳤다.³⁴ 사쿠종합병원에서 최초로 실시한 병원급식 역시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이었다. 평론가 다카스기(高杉) 씨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와카쓰키 선생님께서 이루신 일 가운데 하나가 일본 전체에서 병원급식을 최초로 실시하신 거지요. 당시에는 솥을 집어넣어 목조 병동에서 후다닥 밥을 만들고 했어요. [급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밥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환자들 가운데는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뱅이라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보다 먹는 것이 기본이지요. 그래서 무엇보다 급식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급식을 시행했지요. 인근 농가에서는 사쿠병원을 위해 채소를 제공했지요. 그랬지만 일본 전체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카쓰키 선생님도 암거래 쌀을 모아서 급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쌀은 통제대상이었죠. 무조건 국가가 전부 사들여서 배급을 했으니까요. 그때는 배급권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했을 당시에요. 있었어요. 국가에서 발급받은 수첩이 없으면 쌀을 배급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와카쓰키 선생 및 사쿠병원 의료진은 중앙정부의 시각에 비판적이었다. 즉, 지역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전쟁을 일으키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만 지역민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환자에게 쌀을 주지 못하게 막는 중앙정부의 지침에는 당장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없는 환자에게 쌀이라는 귀한 자원을 배급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해석이 내재해 있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시책이나 발전모델의 한계를 인식한 와카쓰키 선

34 JA長野県厚生連佐久総合病院, 『健康な地域づくりにむけて: 八千穂村全村健康管理の五十年』, 佐久印刷所, 2001, 40~41쪽.

생과 사쿠병원 의료진은 사쿠병원을 중심으로 메디코폴리스(メディコポリス) 모델, 즉 의료(medical), 환경(eco)을 기반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즉, 사쿠종합병원을 기점으로 하여 의료·복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계를 확보하는 산업을 진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왔다. 건설업을 기반으로 하는 외래형 개발모델의 한계를 지적해왔던 환경경제학자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내발적 발전모델을 실천하는 사쿠 지역의 시도를 높게 평가했다.³⁵

이 절에서는 초고령화 맥락에서 중앙정부가 나가노 지역을 어떻게 재현해왔는지 논했다. 일본 정부는 나가노현을 전통적인 농경생활을 지속해 나가며, 가족 및 이웃 간의 유대를 기반으로, 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이 살아가는 단일한 삶의 공간으로 재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나가노현의 특정한 면면들만을 선택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나가노현의 선진적인 면면은 지역주민들이 중앙 중심적인 시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생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노력하여 얻어낸 성과였다. 이처럼, 지역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전통적 삶의 공간으로서 나가노의 지역성을 생산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와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려는 지역민들의 시도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마주침을 통해 새로운 역동을 생산해냈다.

35 宮本憲一·遠藤宏一, 『地域経済と内発的發展-農村と都市の共生をもとめて』, 農産農村文化協会, 2000, 7~26쪽.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로가 제시한 “문화와 인간 경험의 공간화(spatializing)”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나가노현의 지역성이 사회적으로 생산, 구성되는 측면을 역사적으로 구명했다. ‘공간화’란 공간에 사회적 관계와 실재를 위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힘을 맥락화하고, 사람들이 사회적 행위자로서 그들 자신의 실재와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⁶ 이 같은 로의 시도는 지역성에 내재된 역동적 측면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나가노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나가노현의 지역성은 중앙과의 끊임없는 마주침 속에서 생산되어왔다. 대부분의 나가노현 주민들이 알고 있으며, 애창하는 노래인 〈시나노노쿠니〉는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애창심을 가진 국민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 기획 속에서 탄생했다. 또한, 나가노현 지역 내부의 경계는 지역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동계올림픽 개최는 중앙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지역주민들에게 다시금 안겨준 사건이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되자, 일본 정부는 노인돌봄의 문제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채택했고, 이러한 정책기조를 훌륭히 수행해내는 성공적인 사례로 나가노현을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나가노현은 가족 및 지역사회가 나서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본 고유의 미덕이 남아 있는 단일한 삶의 공간으로 재현됐다.

자신들의 삶의 공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생산되는 과정을 바라보며 지역주민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나가노현의 지역성을 구성해 나갔다. 지역주민들은 국민만들기 프로젝트로 고안된 〈시나노노쿠니〉를 마을축제의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36 Setha M. Low, *On the Plaza: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and Culture*, pp.127~131.

전유하여 소속감을 다지는 상징으로 만들어나갔다. 또한, 지방분권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자신들의 공간에 부여했던 의미를 일순간에 상실케 만드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대항하여, 합병 이후에도 합병 이전의 지역 명칭을 부르는 것을 고수하는 등 잠재적 저항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었다. 나아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신칸센을 유치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쇠락하는 것을 경험한 지역주민들은 중앙과의 마주침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키워나갔다. 그리하여 중앙 중심적인 시책의 한계를 자각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메디코폴리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실천들을 꾀했다.

이처럼 일본사회에서 지역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것 혹은 원래부터 존재해왔던 지역 고유의 특성만으로 환원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을 재현 및 규정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고찰했다. 그런데 앞서 규명했듯이, 중앙정부가 지역을 생산하는 방식이 그대로 지역성으로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각자의 공간이 재현되는 방식에 순응하거나 저항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비틀어버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즉, 지역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지역을 재현하려는 다양한 시도들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주민들 간의 대화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구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다.

한 가지 유의할 지점은 나가노현 사례에서 특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중앙과 지방은 항상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이어나갔던 것은 아니다. 나가노 지역주민들은 도쿄와 같은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이며 지속가능한 ‘하나의 나가노’를 꿈꾸기도 했지만, 그러한 실천들은 시정촌 합병정책이나 올림픽 개최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지역민들 간의 갈등을 빚어내기도 했다.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도쿄로 표상되는 중앙은 경계해야 할 외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끈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의식해야만 하

는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대 일본사회에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밝힌다거나 중앙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생산된 하나의 ‘은유’를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³⁷ 중앙정부가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사회를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맥락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중앙정부의 시도가 지역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응하여 일상에서 어떠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구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7 Setha M. Low, "The Anthropology of Cities: Imagining and Theorizing the Cit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5, 1996, pp.383~409.